



[VII]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 제 1 회 □

L: 오늘은 한국 크리스천들의 생활을 반성해 보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 문제라고 보는데, 오늘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의 토픽으로 삼아 볼까 합니다.

K: 역시 현대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인간 문제와 이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떤 철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윤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나 추상적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또 현실의 인간의 모든 모순과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신비스러운 점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설화 속에서 가장 타당성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새로운 인간 이해를 현실적으로 하려면, 구약의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와 인간상을 다시 음미하고 해석해 보아야겠다는 뜻입니다.

L: 현대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또 어떤 것이 인간다운 일인가 하는 시원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을 터득하느냐는 문제와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 또 인간다운 인간의 상(像)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첫째 되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K: 영국 성공회의 신학자인 로빈슨(J. A. T. Robinson)이란 분이 최근에 '신에게 솔직이' (*Honest to God*)라는 책을 저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여 교계와 신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기 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세어도 현대인이 살아 나갈 길이 하나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정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정직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과 대결할 때 정면으로 직시하고 정직하게 대결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와의 대결을 하는 데 늘 핑계나 거짓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살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 선악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자 먼저 발견한 것이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아래를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것은 태양 빛에 쬐이면 곧 쭈그러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본연의 알몸을 온갖 의장으로써 가리고 살아야 한다는 데 인간의 진상(眞相)이 있습니다.

L: 역시 자기를 가리고, 본연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현대인의 가식과 허위가 시작되겠지요. 거짓말을 말로써 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가린다는 소극적인 행동을 가지고도 인간은 이미 허위를 가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 신앙을 가진자들 중에 위선자가 많다는 비판의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만, 따지고 보면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원시적인 위선자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가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점에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고대에만 적용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인간상의 가장 근본적인 면을 건드리고 있다고 하겠지요.

K: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써 자신을 가린다는 창세기의 말씀에 관련해서 생각 하는데, 회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의 보물을 외적인 것과 심령적(心靈的)인 것, 그리고 신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에 따라서 쇼펜하우에르라는 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첫째로는 인간이 벌거숭이의 존재로서 있는 것, 건강이니 미모니 기질, 교양 같은 것이 다 없어도 남아 있는 자아가 있고, 둘째로는 사람이 가지는 것, 소위 재산과 같은 소유물, 그리고 셋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나타내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라든가 평판 같은 것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하겠지요. 현대인은 무화과의 잎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리고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찬란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며 장식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쫓겨 부식하고 있는 것이 인간 세계의 실정입니다. 결국 사람의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자신을 숨기는 일이 더 찬란해 졌고, 그 기술도 발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L: 그렇게 말하고 보면, 예수께서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요 14:6)고 하신 말씀은 자기가 인류의 모범자나 선생이라는 뜻보다도, 인간의 참 모습을 폭로시키고 드러내게 한다는 것, 이를테면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하겠읍니다.

K: 그렇습니다. 참으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벌거벗은 자신을 보고 놀란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은 자기가 벗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은 모양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가려어진 것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고 놀라는 경험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야스퍼스라는 독일 사상가는 이러한 경험을 ‘충격적 동요’를 주는 진리의 경험이라고 했지요. 요즘 사람들은 결코 벗은 모습에는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귀절이 누가복음 23 장 34 절에 있는데,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다가도,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구의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언제나 진짜 자기를 감추고, 그것을 감추어 놓고서 들여다보기 싫으니까 진짜가 아닌 자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무척 애쓰는 경우가 많습시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남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도 많게 됩니다.

□ 제 2 회 □

L: 그리스도교적인 인간상과 인간 이해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현대 한국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웃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목으로 전국적인 사상 운동으로 번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 일소에 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근본 문제는 늘 인간 문제로 귀착되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인간 개조’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되었지만, 결국 인간 혁명이 있어야만 정치, 경제, 문화의 기구나 발전이 이에 따라서 정리된다고 보는 것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인간 이해와 인간상이 현대의 사회나 윤리 생활에서는 대단히

2. 그리스도론과 인간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리스도론적인 필요가 이 한 점에 집중해서 연구되고 발견되어져야겠다고 믿습니다.

최근 한국의 신학계에서도 휴우머니즘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에 제한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과만, 우리가 과학적 휴우머니즘이니 무신론적 휴우머니즘이니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도 성서 특히 구약 창세기에 그려진 인간 창조와 타락의 기사에서 인간와 참 모습을 보는 리얼리스트한 휴우머니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짚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몸을 가린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창세기의 기사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점은 인간의 켜라는 것이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인간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 안에서 비로소 본래적인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당신' 혹은 '그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가족,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당신 혹은 그대의 개념으로 부르곤 합니다만, 이렇게 부르는 그대 혹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게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요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이나 '그대'라는 존재가 나에게 흡수되거나 해소되어지지 않고 하나의 타자로서 나에게 육박해 오는 경우에, 내가 이에 대해서 반응, 응답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나 응답을 하는 나 자신이 늘 경험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대등하는 그대에게는 내가 어쩔 도리가 없는 타자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자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타자성이라는 벽에 부딪쳐 갈 때, 나와 그대와의 관계의 양상이 설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L: 아마 그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限界狀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아스피쇼라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적으로나 생물학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과학적인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스퍼스가 말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없는 일 즉 내가 어떤 양친(兩親)에게서 태어나고 특정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아무리 설명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K: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을 그대로 추구해 나가면 '죽음' 이니 '고뇌'니 '투쟁', 그리고 '죄책'의 네 가지를 한계 양상(限界樣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나는 왜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받는 존재이어야 하는가? 둘째, 나는 왜 평생 고생과 고뇌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가? 셋째로, 나는 일생 동안 무엇 때문에 설새 없이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네 번째로는 내가 왜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서 살 수 없는가? 이러한 네 가지 한계 상황을 인간이 지니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란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라고 단점을 내리기 쉬운 것입니다.

L: 아마 여기서 우리는 운명이나 인과(因果)나 필연성에 관한 이야기를 관련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 전통에서는 운명론이나 인과보응 등의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이변(異變)이 생길 때나 일신상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풍수설이나 무당을 찾게 되는 것도 일종의 운명적인 것에서부터의 구원을 회구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리 속에는 이러한 경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K: 이러한 인과, 필연성이라는 생각은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인간 세계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이 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가지로 인간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든가 하는 점에서 식물이나 인간에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식물이 다른 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인과 법칙과 필연성 속에 깊숙이 빠져 살수록, 자유의 의식도 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자유의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운명적인 존재인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풀릴리는 말하기를 인간이 자신을 규정하여 자기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운명을 가지는 능력도 증대해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의 의식이 없는 인과, 필연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다고 할 수가 있지요.

L: 그런 의미에서 식물이나 동물계에는 비극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비극을 가졌다는 것이 인간의 영광일지도 모르지요. 인간의 비극성 속에 인간의 위대한 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K: 그렇습니다. 인간이 비극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점을 든다면, 사람이란 것이 한계 상황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 즉 죽음, 고뇌, 투쟁, 괴책 등의 상황 속에서도 늘 자유를 회유하여 나가는 존재인 동시에 또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데서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위치 속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그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태도 표명에서 가치의 창조를 이룩해 나간다고 하는 데서 인간 존재의 둘째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는 우리가 늘 듣는 독일의 음악가 베토벤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구자로서 인간 불행의 밑바닥에서 고민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그가 고독 속에서도 끝까지 그 주어진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기쁨을 거절당한 그는 스스

나는 어떻게 생활한단

로 기쁨과 행복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선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뇌와 고독을 깨물고서 환희에 도달한다는 것이 그의 교향악의 주제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행운 연달에서, 그것을 기쁨과 활력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에는 이렇게 인과(因果)나 필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극적인 인간이 그 필연성, 운명성 속에서 자유의 의식을 가지고 태도를 포명하고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점점 키져서 늙으면 죽어버린다,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 아들에게서 손자로 세월이 흘러간다—이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의 흐름은 있어도 거기에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 인과나 필연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이 나타날까 않는 한, 역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시간과 영원이 합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 제 3 화 □

L: 사람이란 언제나 필연적인 운명 속에서도 늘 자유를 회구하며, 그러한 자유에의 동경 속에 인간의 비극과 영광이 있다고 지난 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늘 체념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현실에 집착하는 생활만 계속하기 쉽습니다. 안팎이 이 시간을 빌어서 언급했습니다만, 오늘날만큼 우리에게 바람직한 인간의 상(像) 혹은 모습이 안타깝게 그리워지는 때도 드물 것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니 인간관이니 하면서, 인간의 입장을 떠나서 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관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가령 불교나 혹은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도 슬픔이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라는 것의 원인을 잘 해탈하면 그 슬픔을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만,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초연한 관찰이 허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 사실 그래요. 가치의 창조라든가 역사에의 참여라는 것은 절대로 관조하는 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진리 안에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은 진리를 사고하거나 명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삶의 속에서 응답을 표시하고 태도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진리는 결국 관재의 양상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본 질서를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인간은 천지 창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의 협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동방 세계에서는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일은 주권 행사요, 창조의 완성 사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건을 만드는 일에 못지 않게, 그 만든 물건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물의 형태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창조의 사업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마치 기성품처럼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끌라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여 쓸 수 있도록 책임을 지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L: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중에 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다스리고 주권 행사를 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겠는데, 꽤 흥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적인 휴우머니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성이라는 것도 만물의 영장이니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으로서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휴우머니즘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고대 회람 철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상과 이 창세기의 사상과는 서로 다른 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K: 회람 사상 특히 플라톤의 사상에서는 사물보다 이름이라는 이념이 먼저 있었다고 했지요. 여기 강아지가 있다면, 그것이 스피치이든 세퍼드이든 또는 진도개이든 간에, 그러한 자기 다른 개보다 영원 전에 개라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구체적인 각양각색의 개가 유래된 것이라고 했으니 성서의 입장과는 정반대이지요. 이름이 인간보다 먼저 있는 것이지 인간이 이름보다 먼저 있지 않다고 한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지요. 그러니까 회람의 사상에서도 진정한 창조의 생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원인과 결과는 있을지언정 창조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에서만 진정한 휴우머니즘을 찾을 수가 있지요.

L: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러한 창조 사업의 동역자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 관계는 창조주와의 관계에 비추어야만 그 본래적인 성격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 관계는 결국 개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제대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서 비로소 나의 골육이나 공동체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K: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대로 인간 관계나 공동체 문제에 직결시켜 이해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다 논할 수는 없으나, 다만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흥미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장남의 권리를 빼앗아 형의 노여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동생 라헬은 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동생 라헬을 취하기 위해 7년 간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게 되는 날에 외삼촌 라반은 둘째 딸 대신에 장녀인 레아를 야곱의 침실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야곱을 생탈하는 사랑과 질투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머슴의 여자를 자기 대신에 야곱에게 보내어 잉태하여 가지고 아이를 자꾸만 낳게 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야곱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L: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동양적인 가족주의적인 점과 대단히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히브리 민족은 동방의 여러 나라와 비슷한 가족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 그렇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애정을 끌어 오려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 장면은 창세기의 기사인 동시에 현재 우리 생활에서도 가장 리얼리스틱한 인간 애정의 갈등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고대 사회의 애정 문제라는 시대적인 제한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현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사랑과 미움의 싸움에서도 이런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투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관계에 늘 주 여호와가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9 장 31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고 그 밖의 여러 곳에서 이 사랑과 미움의 드라마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구체적인 인간의 사랑과 미움의 싸움 속에서도 간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교적인 휴머니즘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직나라하듯 폭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여를 보여주고, 그리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 제 4 회 □

L: 하나님은 모든 인간 관계에 직접 상관하고 계시다는 말로 지난 시간을 끝맺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라고 하면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가 한 집안에서 사는 가족에서 시작하여 직장에서 사귀는 사람,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학우, 그 밖에 우리가 접하는 사람이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인간 관계라는 말에다가 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네아와 라헬의 사랑과 미움의 싸움에도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시고 계셨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인간상의 문제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R: 첫째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한문자로는 人間(人間)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지요. 이 한자 표현은 대단히 함축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란 인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만 사람답게 된다는 말이지요. 사람과의 관계의 양상을 떠나서는 인간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야, 인간이야, 또는 사람이 됐다, 인간적이지, 인간미가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은 결국 한 사람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7. 그리스도교회 인간상

우리도 가끔 듣고 또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그 사람이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공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사람이 됐다는 말만큼이나 높이 평가를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마 이러한 말의 배후에는 사람의 성숙성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됐다고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짐승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컨대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숙한 인간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말로 이해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다’(Being—存在)가 ‘된다’(Becoming—實存)로 변하게 되는데, 모든 인간 문제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라 동양에서는 인간은 창조 질서보다도 자연의 질서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지요. 인간 사회의 정치, 문화를 자연과 더불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했으니, 일종의 자연법에 의한 정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연스럽다는 것을 높은 덕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양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양에서 자연은 극복되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동양에서는 자연이라는 것은 순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격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을 대우주라고 한다면 인간을 소우주로 보는 것이 동양 사상과 의학의 근본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인격 개념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 역시 자연의 질서와 같은 질서가 인간 관계에도 있다고 한다면, 성서적인 인격보다도 인간이 어떤 사물, 자연적인 것으로 환원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동양에서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사람이 된다’는 생각보다 앞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아버지이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는 것이 '아버지가 된다'(becoming)는 것보다 앞서고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남편이 된다'는 것보다 늘 앞서게 됩니다.

☞ 이러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종래의 인간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기독교의 성서적인 인간 관계는 '되어진다'는 일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어떤 속성을 가지고 무소부계하여 초월자로서 가만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역사 안의 인간 관계에 직접 참여하여서 움직이고 행하시는 신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의 배후에는 이러한 인격 형성의 개념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답다거나 인간미가 있다는 말은 결국 고립된 인간 관계보다는 타인과의 성숙한 인간 관계를 가져보겠다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성의 상실이니 인간 실격이니 하는 말도 역시 인간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사람이 극도로 소외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L: 이 문제를 좀 더 추구해 나가면 소위 전근대적 인간상이니 근대적 인간상이니 하는 문제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신앙 생활의 근본 문제에서 좀 거리가 먼 문제입니다만, 요즘 우리 형편에서는 꼭 실감이 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 전근대적 인간상이란 말은 역시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인간 관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 같아요, 정치, 경제, 문화가 달라지니까 이전과 같은 인간 관계로써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이전 같으면 사회나 직장 생활에서도 가부장적(家父長的)인 제도와 분위기 속에서 살아 왔지만, 요즘은 대단히 기능적인 입장에서 인간 관계를 따지거든요. 직장의 웃자리에 앉은 사람을 자기의 상사라는 속성 때문에 무턱대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의 기능이 무엇이며 그가 어느만큼 그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냐를 가지고 평가의 기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준으로 삼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있어서 새 인간상을 말할 때 종래의 가부정적인 인간 관계를 탈피하고 기능적인 인간 관계를 가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 기능 시대는 '이름이 없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소위 '무명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이 없는 기능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 관계를 윤곽하게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K: 고립되고 분리되어지면 소외가 되는 것이 근대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학 시대에서 사회 구조와 제도가 자연히 기능적으로 변해 가는데, 여기서 인간 관계도 종래의 전통적인, 무침하고 윤곽한 전통을 떠나 모든 것을 타산적으로 규정지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 사회 속에서 인간이 되고, 인간미가 있는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천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룩과 같이 퍼지고, 이름이 없는 사회 즉 무명성의 사회 안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너무나 목가적(牧歌的)이고 감상주의적인 옛날 생각에서 해석하기 쉽고,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기능적으로 변해 가는 사회, 인간 관계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타당성은 이러한 기능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때마른 사회일수록 복음적인 인간 관계라는 것이 더욱 빛나리라고 생각합니다.

L: 근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찾는 새로운 인간상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참으로 생명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K: 그렇습니다. 근대 사회 안에서 참으로 무명성의 이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현대의 무명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모르는데, 그것이 근대적인 기능 사회에 있어서의 이웃의 개념이요, 인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 제 5 회 □

L: 사람이 된다가나 인간성을 찾는다는 것이 근대에 와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인간 문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양상에서 다루어져야겠고, 사람인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찾으며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간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자아는 결코 고립될 수가 없고 또 고립한 것으로서 그 자아의 본질을 캐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M: 얼마 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도 베스트 셀러로 알려진 일 본 작가의 저서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벌어진 온갖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리얼리즘을 보여준 작품인데,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립의 조건', 즉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죽을 때는 홀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홀로 사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고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인간은 홀로 행동할 수는 있으나 하나로서 즉 사물처럼 하나의 물건으로서 행동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비인격적인 사물의 개념이요, '홀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인간 관계를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파스칼의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인간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이 다른 인간과 자치는 깊은 유대 속에서 늘 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하나', 혹은 인격적인, 절대적인 고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국 혼자서 내려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겠읍니다.

☞ 인간은 하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립이라는 말과 고독이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고독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고립해서 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이란 이웃과의 인간 관계에서 참 삶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없읍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생활이 곧 집단 생활 속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집단 속에 자기를 예속시키는 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 곧 집단 속에 자아를 매몰시켜 버리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과거와 전체주의나 전체주의 정치에는 늘 이러한 인간 공동체를 절대화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 점에서 현대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이 지닌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 동족 관계, 혈육 관계만을 절대화하여 가지고 민족 지상주의에 빠지는 일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특히 2차 대전 중의 일본이나 독일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 지상주의는 결국 인간 관계를 절대화한 데서 비롯되었읍니다.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만 살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 인간 관계를 절대화하면서 자기 민족 국가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큰 맹점입니다. 여기에 현대 집단주의 사회의 위험이 있습니다.

☞ 결국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 관계가 2차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3차원적인 즉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 그 근원을 찾지 않으면, 집단 공동체 자체를 절대화하는 위험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민족주의니 국가주의니 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릇된 배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인류와의 공동 유대에서 빛나간 쇼비니즘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현대의 인간 문제는 이렇게 국가나 민족에 대한 견해를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요즘 근대화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만, 근대화를 말하기에 앞서 근대적인 인간 이해를 먼저 문제로 삼지 않으면, 이러한 근대화도 사상누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K: 그렇습니다. 근대적인 인간 이해를 먼저 말하지 않고서 근대화만 일삼는다는 것은 꽤 위험하고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가 결실히 요구되어집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이미지를 도로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대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 관계를 재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인간 소외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막스 피카아트라는 분이 말하기를, 근대적인 세계는 심장을 잃은 존재요, 깨어져 가는 이미지를 가진 것이며, 인간은 원자처럼 산산이 흩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모래알처럼 서로 분리되어서 그 인간성을 상실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소외되어 가는가? 우리는 현대의 기술 문명과 대중 사회, 도시화 등의 현대 세계의 변천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술 사회는 결국 인간을 한 알의 모래처럼 만들었다고 하겠지요.

L: 근대화를 말할 때에 여기에서 인간이 이처럼 소외가 되며 기술 사회나 대중 사회 속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문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소외가 된 사람,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의의와 윤택한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

7. 그리스도교적 인간상

수 있게 하느냐가 꼭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K: 결국 삶의 근본을 어디에 두며 삶의 지향하는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성이 고독에 빠지지 않고 또 그와 반대로 집단 속에 매몰되어서 자아를 상실하지도 않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복수로 전환되어지는 과정이 단순한 생물학적인 공동체의 의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베르자에프가 말한 대로 '영혼과 영혼의 결합'을 가져오는 마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러한 마음의 공동체의 바탕인 초월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신앙이 없이는 이러한 마음의 결합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성도의 사귀음을 강조하거나 성찬식을 하는 근본 뜻은 이러한 인간 관계와 인간성,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에 이루어진 창조적 질서가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로 전환되는 일은 집단 속에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아가 고독에 빠지는 일이 없이 하나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살아 나간다는 창조적인 삶의 실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한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 속에 완전히 해소되어 버리면, 그 아이는 건전한 인격 발달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도 자식이 자신에 대한 고집과 고독을 경험할 줄 알아야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 아까 인용한 파스칼의 말도 따지고 보면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타인과의 유대 관계에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고독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러한 고독 속에서 긴장과 대립을 극복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겠지요.